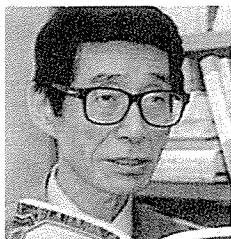


“氣치료는 무공해 醫術”



徐廷範
(경희대 명예교수)

무속인(巫俗人)들은 어디서 병을 치료할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가. 그것은 무속인이 보통사람보다 강력한 氣가 있기 때문에 예지력과 치유능력이 생겨 약과 침을 쓰지 않고도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氣치료가 대중화되어 병원에서는 기공사 한방 양의가 협동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

요즘 무속이(巫俗)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었다. 선거철이나 입학 때에는 무꾸리가 분뻗었다. 다만 물 속에 가라앉아 있던 잠수함이 물 위에 떠올랐을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에는 순서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내일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다. 어려움과 고통과 갈등이 극심할 때와 사회적으로 불안할 때 더욱 내일을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증대된다고 하겠다.

무속인의 예지력과 초능력

무속인들은 그가 원해서 무속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할 수 없이 하게 되는데 그것도 무병(巫病)이라는 아픔의 고비를 넘고 되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안하면 병이 도지거나 자녀들과 가족들간에 불화와 질병이 생기고 가정풍파가 거세게 일어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무속인이 되어야만 하는가.

무속인이 되는 가정적 배경은 유전적인 요소가 35퍼센트 가량 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의 가족이 무속인이 아니라더라도 그러한 쪽에 심취되어 있는 환경과 불교나 외래종교 등 신비적인데 심취되어 있는 자녀들을 들 수 있겠다. 약 65퍼센트는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충분한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한 환경을 들 수 있다. 말을 바꾸면 정서불안과 애정의 결핍 등이 그 가정적 배경이 된다.

왜 애정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예지력과 병을 고치는 치유능력을 지니게 될까.

원시시대에는 사람들이 짐승들에 놀려 지냈다고 하겠다.

십이지(十二支)의 쥐띠니 뱀띠니 돼지띠니 하는 것만 보아도 짐승이 사람보다 우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돼지는 뱀을 잡아먹기 때문에 돼지띠와 뱀띠는 앙숙으로 결혼도 안한다. 뽀뽀러 지키미 또는 지키미라고 해서 가정의 수호신인 구렁이와 쪽제비와 두꺼비가 있다. 떡두꺼비같은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칠성님께 빌기도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짐승에 놀려 있을 때 그들과의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짐승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강력한 방어능력이 있어야겠다고 생각된다.

박쥐는 지진이 일어나기 사흘 전에 굴에서 모두 나온다고 한다. 지진이 일어나면 몰살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 곧 초능력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원시시대의 사람들은 시각이나 후각, 청각, 촉각 등이 뛰어나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서 적의 습격에 몰살당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조상인 옛사람들은 모두 초능력을 지닌 초능력자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 다른 언어가 있기 때문에 정보교환이 이루어져 지혜가 발달하여 방어법, 공격무기 등이 개발되고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자연에 적응하는 초능력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즉, 원시인들의 초능력이 문화와 문명에 의해 침잠(沈潛) 또는 퇴화된다고 하겠다.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경우는 그 든든한 정신적인 사랑의 울타리가 있으니 초능력이 필요없지만 사랑의 울타리가 없는 사람은 혼자 살아가기 위해선 원시의 초능력이 필요하게 된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왜 무속인은 예지력과 병을 고치는 치유능력을 지니게 될까. 원시인들은 천재지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살아남기가 힘들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고 가뭄이 들고 산사태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아는 예지력이 필요할 것이다. 뽀뽀러 짐승들이 기습하고 이웃 부족들이 공격해 올 것을 미리 알고는 생존의 위협이 된다. 더구나 잠이 깊어 들었을 때 기습을 막기 위해서는 예지력이 있어야 한다. 꿈이 바로 그 구실을 해준다. 이렇듯 예지력이 자연의 재난에 적절히 대응하고 짐승과 이웃 부족들의 기습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

약과 침없이 氣로 치료

그런데 왜 무속인은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는가? 원시인들에게는 약이 없었다. 약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경험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원시인들이 병이 났을 때에는 치유방법이 별로 없었다고 하겠다. 그럴 때에는 무속인이나 요즘 기 치료 치료사와 같은 방법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지력이나 치료능력이 무속인에게 있다는 것은 생존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무속인들이 치유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보통사람보다는 강력한 기(氣)가 있다고 하겠다. 이 기가 많기 때문에 예지력도 생기고 치유능력도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 무속인들은 그렇게 심한 무병(巫病)의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무병의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 그것은 기가 증폭됨에 따라 체내에서 그 기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체의 생체리듬을 잃게 된다. 그러한 무병을 거치는 동안에 몸에서 그 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될 때 안정이 되며, 예지력과 치유능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초능력의 소질을 가지고 있는데 동기만 부여하면 시간의 차이,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초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를 치료하는 '태극의 집'에서는 가정부가 3개월만 지내면 초능력자가 된다. 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지병을 '태극의 집'에서 기로 고치자 현대 의학에서 못 고치는 것을 약도 안 쓰고 침도 안 맞고 병이 낫자 도대체 기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 그 집에서 청소를 하고 안내일을 하는 봉사를 하다가 3개월 만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 것이다.

또 기 치료를 받다가 기가 증폭되어 치료능력이 생겨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사람에게는 그러한 힘이 잠재되어 있는데 기를 받게 되면 그러한 능력이 증폭되어 병이 낫고 계속 받게 되면 기가 더욱 증폭되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한방에서 약을 쓰고 침을 놓는 것이 바로 기의 운행을 원활히 하여 기를 증폭시키는 한방치유법이다. 기 치료사들이 하는 것은 약과 침을 쓰지 않고 직접 기를 넣음으로써 기의 운행을 원활하게 하여 병을 낫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건강을 유지하게 한다고 보겠다.

그러한 면에서 무속인들이 예언을 하

고 곳을 하고 지성을 드러 병을 고치는 것은 신비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쁨이라고 하겠다.

미술가는 기가 그림을 그리는 쪽으로, 음악가는 기가 그 음악을 하는 쪽으로, 무용가는 기가 무용 쪽으로, 과학자는 기가 과학 쪽으로, 학자는 기가 연구 쪽으로, 정치가는 기가 정치 쪽으로 쓰일 뿐이다.

중국병원선 기공사 공식화

중국에서는 기공이라고 해서 대중화되고 공식화되어 있다.

중국에서 공산당 지배하에서 무속인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치유능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모택동 지배하에서는 기 치료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졌었다. 그 기의 덕을 등소평이 특특히 보았다.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기공이라고 해서 공인하여 현재 중국병원에서는 기공사·한방·양의학 협동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 기공사가 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무당이 되는 과정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기공사들은 기로 병을 치료하지만 예언능력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무속인들이 지니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氣)를 국민보건에 유효하게 쓰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무속인이나 기 치료사들은 특수한 사람이 아니라 예언력과 치유능력을 지닌 보통 기능인이라고 하겠다.

기를 문화와 과학의 분야에 쓰는 것과 생명보존에 쓰는 것과 어떤 분야가 더 가치있다고 볼 수 있을까. 생명이 없는데 문화와 과학이 발전할 수 있을까. 기 치료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생명적이고 부작용이 없고 무공해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㉟